

2018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소설·동화 심사 완료

참여작 대폭 늘어...2068편 접수 시대 보다는 일상 다룬 작품 많아



2018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21일 오후 본사 14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삼현 동화작가, 함정임 소설가, 나희덕 시인.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부산·수도권·미국...예비 작가들 각지서 응모 “글에 담긴 열망 확인...개성 드러낼 작품 많았으면”

한국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2018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완료됐다. 예비 작가들의 열기는 계속되는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뜨거웠다. 2018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많은 문장들이 응모를 했다. 올해 응모작은 모두 2068편. 시 1750편, 소설 183편, 동화 135편으로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응모 현황을 보였다.

올해 신춘문에는 촛불 정국 이후 새롭게 재편된 정치 지형에 따라 응모자들이 정치적 관심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개인의 일상 부분에 초점을 둔 경향이 드러났다. 예비 작가들이 정치 문제보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 미시적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높은 응모 현황과 달리 작품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예비 작가들이 글쓰기 열망에 비해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접근 방식에 있어 치열성과 완결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의미였다. 이번에도 눈에 띄는 투고작들이 적지 않았다. 원고지에 직접 작품을 써서 보내온 응모자도 다수 있었고, 멀리 미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작품을 보내온 투고자들도 있었다. 신춘문에 직접 방문해 투고를 한 예비 작가들도 예년보다 많았다. 또한 광주 지역 거주자들뿐 아니라 전남·북 일원 그리고 부산과 대구, 울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투고자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예비 작가들의 응모도 두드러졌다. 신춘문예가 작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등용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고른 분포는 여전히 문학의 가능성과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

소설 부문에서는 포스트 휴먼을 소재로 한 작품, 광주라는 역사적 고유성과 아우라를 풀어낸 소설들이 눈에 띄었다. 함정임 작가는 “대중적 오락적 취향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품들도 많았다”면서도 “그

러나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서사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 부문에서는 개인의 미시적인 삶을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예년에 비해 응모작품은 늘었지만 수준은 평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혜진 시인과 나희덕 시인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작품은 없었지만 시를 쓰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다수 있었다”면서도 “예비 작가들이 모범 답안 같은 시보다는 도전적이면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를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화 부문 또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소재적인 측면에서 동물,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등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윤삼현 동화작가는 “식상한 소재나 가벼운 일상에서 탈피해 외연을 확대했으면 한다”면서도 “그 주제를 의미있는 예술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한편 당선작은 2018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8년 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 해동주조장 내일 ‘해동겨울음악회 메리클래식’

담양군에 위치한 해동주조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오는 23일 ‘해동겨울음악회 메리클래식’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뮤지노마드가 주관하며 이들은 참여와 교육이 함께 한 음악회 프로그램에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 클래식

창작음악과 단체로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등)와 관악기(플룻, 오보에, 트럼펫 등)들로 이루어진 클래식 악기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선보인다. 공연에는 ‘피아노 앙상블’, ‘도이피아노 앙상블 슈’, ‘프로젝트 the 울림’, ‘비예라 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내가 직접 만드는 벨소리’, ‘나도 작곡가’, 동시에 울리는 음악을 듣고 어떤 곡인지 찾는 ‘음악 받아쓰기’, ‘스모어 간식 만들기’, ‘겨울 소품 캔들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문의 061-380-347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네 가지 목소리’ 마나시로프 초청 독창회 2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테너, 바리톤, 카운터 테너 등 네 가지 목소리를 소유한 이고르 마나시로프 초청 성악 독창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 날 공연에서는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예브니기 오네긴’ 중 ‘오네긴의 아리아’,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여’,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츠’ 등 21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고르 마나시로프는 모스크바 출신으로 러시아 예술종합대학 기치스 뮤지컬학부를 졸업했고 RATA 교육학부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쳤으며 러시아 예술종합대학 기치스에서 보컬코치로 일했다. 벨칸토 창법의 대가들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엘레나 오브라조바, 카를로 베르곤찌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현재 모스크바 문화·예술 국립대학에서 발성을 가르치고 있고, 러시아 국립음악센터에서 일하면서 유럽, 미국 등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다.

피아노연주자 레일라 알렉페로바는 그레신 국립음악대학과 모스크바 예술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문의 010-2324-864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를 마쳤으며 러시아 예술종합대학 기치스에서 보컬코치로 일했다. 벨칸토 창법의 대가들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엘레나 오브라조바, 카를로 베르곤찌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현재 모스크바 문화·예술 국립대학에서 발성을 가르치고 있고, 러시아 국립음악센터에서 일하면서 유럽, 미국 등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다.

피아노연주자 레일라 알렉페로바는 그레신 국립음악대학과 모스크바 예술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문의 010-2324-864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자유로운 시선으로 소통하다...광주 다양성 영화 상영회



22~23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25편 상영

광주에서 제작된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제 1회 광주 다양성 영화 상영회’가 열린다. 22일~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3.

이번 행사는 지역 영상인들의 창작의지 고취를 위한 ‘2017 광주시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다양성 영화 상영을 통해 기존 장르 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다양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다.

이번 상영회는 ‘자유로운 시선으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영상인들은 물론 청소년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를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은 모두 25편으로 올해 ‘다양성영화제작지원작품’ 12편을 비롯해 광주영화인협회가 추천하는 작품 5편, 한국청소년영화제 상영작 5편 그리고 광주동구문화센터와 광주영상인연대의 추천작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12개의 작품이 관객과의 대화(GV)자리를 가지며, 이 내용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3에서 갖는다. 개막작은 ‘슬픈 결혼사진’으로 22일 오후 7시30분 상영되며 23일 오후 5시50분에는 폐막작 ‘세월오월’이 준비됐다. 문의 062-674-400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미술인의 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지역 청년, 중견, 원로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마감하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는 ‘미술인의 밤’ 행사를 연다. 22일 오후 6시~8시 미술관 본관 1층 로비.

1부에서는 사단법인 ‘어썸 오케스타라 앤 콰이어’의 축하공연과 만찬이 펼쳐지며 2부에서는 조진호 미술관장 인사말, 가수 박문욱씨의 축하공연, 미술인 및 미술단체 소개, 운동회(가수 겸 하정웅정년작가초대전 ‘빛2017’ 참여작가) 씨의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마련한 행사로 미술관은 앞으로도 지역 미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미술인의 밤’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또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술관 1층 어린이미술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날마다 생일’을 진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당선자 5명 선정

무각사(주지 청학)가 제6회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 공모 당선자를 발표했다.

30명의 신인 작가들이 응모한 이번 공모에서는 심사를 거쳐 장미란(33·수묵), 선완호(34·서양화), 장승호(30·서양화), 김연호(25·서양화), 문장환(25·미디어 설치)씨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작품성 및 작가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가장 큰 점수를 주었으며, 기타 각 작가별 작업경험 및 장르와 성별, 출신학교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작가들은 2018년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17일간씩 개인전을 개최할 기회를 갖게되며 로터스갤러리는 공간 및 전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로터스갤러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역량있는 신인작가들을 계속 발굴, 지원함으로써 젊고 역동적이며 특징이 있는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어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IANG HOTEL